

# “영남권 신공항 정치적 이용 시도 중단하라”

## 대구시의회 신공항건설특위 김해신공항 재검토 철회 요구

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(위원장 홍인표)가 영남권 신공항 정치도구화 시도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.

신공항 특위는 25일 대구시의회에서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 위원 및 배지숙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함께 ‘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정치적 이용 규탄 성명서’를 발표했다.

김태원·김지만 의원 등 특위위원들은 이날 부산과 울산, 경남지역 일부 정치권의 영남권 신공항 정치도구화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, 중앙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계획대로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.

성명서에는 △정부는 외국전문기관의 검토와 평가 그리고 지역민의 합의를 무시하고, 특정 지역 정치권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결정한 ‘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’을 즉각 철회할 것 △정부는 영남권 신공항으로 추진하는 김해신공항사업이 대한민국의 국방 및 항공정책과 직결되는 국가차원의 안보사업이자, 기반시설사업임을 각인하고, 원래 계획대로 책임있게 추진 할 것 △부산, 울산, 경남지역 정치권은 더 이상 여론몰이로 지역갈등을 조장하며,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체 영남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정치선동을 중단



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특위 위원들이 25일 신공항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.

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. 홍인표 위원장은 “영남권 신공항은 정치도구화 할 사안이 아니며, 국토 균형발전과 영남권 5개 시·도가 합의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 최대의 상생협력 사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”이라면서 “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”고 목소리를 높였다.

이창재 기자 lcj@idaegu.com